

##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



김목한\*

hookman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



김범식†

hookman@sdi.re.kr, kbs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

### 개요

- 근래 서울시의 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약화와 서비스업의 질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 추세를 기록
  - 서울시의 제조업은 종사자 기준으로 2000년 전체 산업의 15.9%에서 2009년에는 6.8%로 감소하였으며, 부가가치 비중 또한 7.0%에서 4.5%로 감소

\* 저자 학력, 경력 및 최근 연구:

- 미국 Rutgers University 계획 및 공공정책 박사
- 서울시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(2011), 서울시 주요 산업별 창업패턴 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(2010) 등

† 저자 학력, 경력 및 최근 연구:

- 성균관대학교 통계학박사
-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
-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분석 (2010), 서울시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(2010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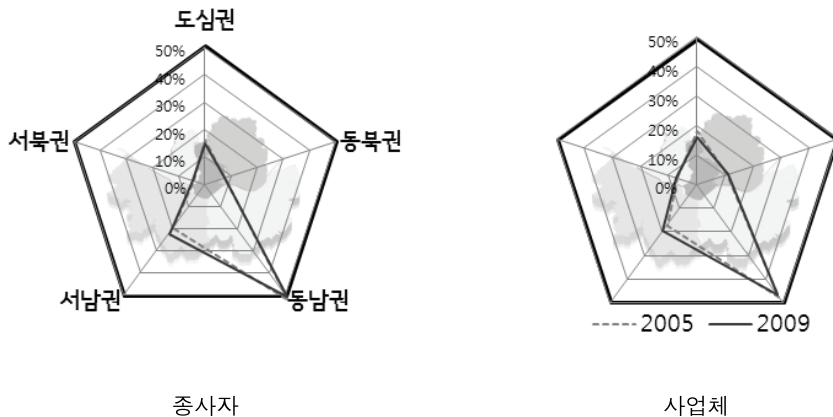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은 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의 77.1%에서 2009년에는 87.4%로 증가하였으나, 전국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41%에서 36%로 감소
- 2007년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로 돌아서, 2007년 4.4%였던 서울의 실질경제성장율이 2010년 2.1%로 전국 수준(6.2%)을 하회
- 서울시 권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집적 추세 지속적 진행
  - 도심권, 서남권 및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집적 추세가 지속되고, 상대적으로 동북권과 서북권의 산업 집적은 미흡
  - 권역별로 형성된 산업집적지를 구성하는 산업구성 또한 권역별로 상이
-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방향과 현 산업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경제 체질개선이 요청되는 상황
  - 향후 서울시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이 산업들의 서울시 권역별 분포 추세 및 현황 파악이 필요
- 이 원고에서는 서울시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 선정된 다음 8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추세와 현황을 분석
  -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: 비즈니스서비스, 금융, 관광·MICE
  - 차세대 스마트 기술 육성: IT 융합, 바이오메디컬, 녹색산업
  - 창조산업 육성과 창조인재 양성: 콘텐츠, 디자인·패션
- 또한, 서울시 권역별 균형발전의 가능성 탐색을 위해 서울시 5개 권역별로 개별 산업의 분포 파악
  - 산업별 도심권, 동북권, 동남권, 서북권, 서남권의 비중 변화 분석

## 서울시 주요 산업별 추세와 현황

### 1) 비즈니스서비스

-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동남권이 최대 집적지이나 최근 다소 비중 감소
  - 2009년 기준으로 종사자는 동남권에 서울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.8%가 밀집되어 있으나, 이는 2005년의 52.0%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어든 수치
  - 동남권 다음으로는 서남권(22.2%), 도심권(14.9%) 순이었으며 서북권이 4.6%로 가장 하위
  - 사업체 역시 동남권이 46.2%로 가장 높았으며, 서남권(19.4%), 도심권(16.1%)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동남권 사업체수 비중도 2005년 47.2%에 비하여 약 1% 감소

[그림 1]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- 서울 전체로는 사업체와 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며, 종사자수 증가율이 더 높음
  - 사업체수는 2005년 20,831개에서 2009년 21,868개로 약 5%정도 증가하였으며,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.2%를 기록
  - 종사자수는 20여만 명에서 25만여 명으로 27.4% 증가하였으며, 연평균 증가율은 6.2%로 사업체수 증가율 상회

[표 1]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198,760	253,181	6.2
사업체	20,831	21,868	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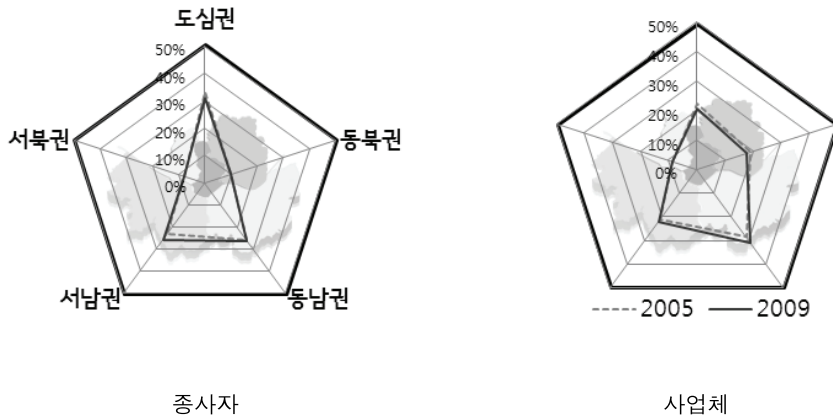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## 2) 금융

○ 금융업 종사자는 도심권, 서남권, 동남권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며, 사업체는 동남권에 주로 집적

- 2009년 기준 종사자는 도심권이 30.8%로 가장 높으나 동남권 26.1%, 서남권 25.5%로 세 권역이 상위 3개 권역 형성
- 2005년 도심권 33.2%, 동남권 26.0%, 서남권 23.0%에 비해 도심권은 2.4% 하락한 반면 동남권은 0.1%, 서남권은 2.5% 상승
- 사업체는 서북권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, 동남권이 30.7%로 비중이 가장 크며, 서남권 22.1%, 도심권 20.7%, 동북권 17.7%를 각각 차지
- 2005년 사업체 비중은 동남권 28.5%, 도심권 22.4%, 서남권 21.3%, 동북권 19.1%로, 동남권만 2.2% 상승하였고 나머지 3개 권역은 하락

[그림 2] 금융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-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증가하였으며, 종사자 증가율이 사업체보다 높음
  - 종사자는 21만2천여 명에서 24만 8천여 명으로 16.7%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수도 8,577개에 9,283개로 8.2% 증가
  - 연평균 증감율은 종사자 3.9%, 사업체 2.0%로 종사자 연평균증가율이 사업체연평균 증가율의 약 2배

[표 2] 금융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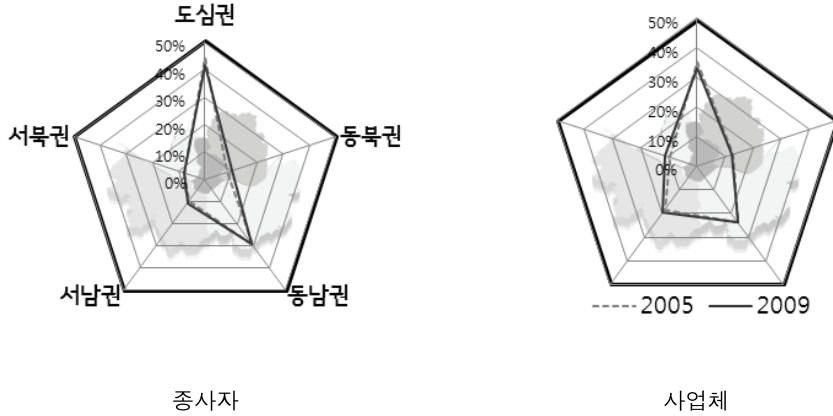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212,151	247,625	3.9
사업체	8,577	9,283	2.0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### 3) 관광·MICE

- 관광·MICE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도심권과 동남권에 밀집
  - 2009년 기준 도심권에 종사자의 41.6%가 몰려있으며 동남권도 29.3%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
  - 도심권의 종사자 비중은 2005년의 44.5%에 비하여 2.9% 감소하였으며, 동남권도 29.5%에서 0.2% 감소한 반면 동북권이 8.4%에서 10.3%로 비중 확대
  - 사업체 비중은 2009년 도심권 33.1% 동남권 23.4%, 서남권 19.7%로, 3개 권역에 전체의 76.2%가 집중
  - 2005년에 비해 도심권(35.3%)과 동남권(23.7%)은 소폭 감소한 반면 서남권(18.6%)은 소폭 상승하였으며, 서북권이 9.6%에서 11.2%로 가장 큰 폭 상승
- 사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종사자수는 증가
  - 종사자수는 2005년 5만6천여 명에서 2009년 6만2천여 명으로 약 6천여 명 증가하였으나, 사업체수는 오히려 감소
  -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.5%이며, 사업체는 연평균 1.2% 감소

[그림 3] 관광MICE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[표 3] 관광MICE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56,274	62,218	2.5
사업체	5,546	5,293	-1.2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#### 4) IT융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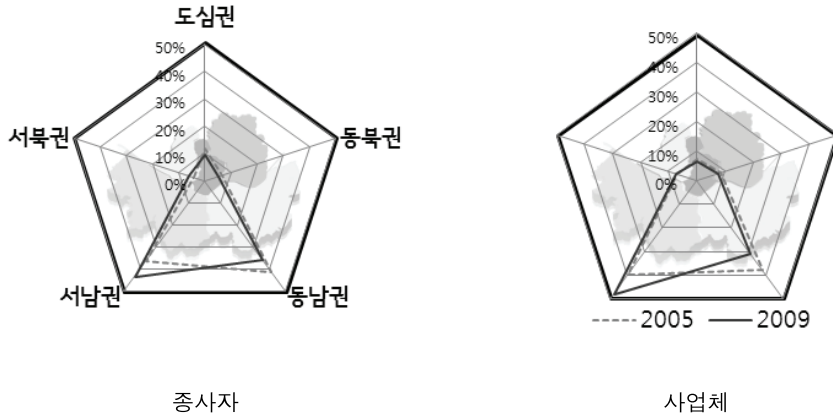
##### ○ IT융합산업은 서남권과 동남권의 두 권역에 밀집

- 종사자는 서남권 43.4%, 동남권 35.8%로 두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, 나머지 3권역은 모두 10% 이하
- 사업체의 집중도는 좀 더 두드러져 서남권 47.8%로 거의 절반에 근접하였으며, 동남권은 30.8%로 종사자 비중 하회
- 2005년에는 동남권의 종사자 비중이 41.1%로 서남권의 36.4%보다 높았으나, 서남권은 7.0% 상승한 반면 동남권은 5.3% 감소하는 하락세
- 사업체 역시 2005년에는 서남권(39.8%)과 동남권(37.6%)이 비슷하였으나 2009년 기준으로 서남권은 47.8%로 증가, 동남권은 30.8%로 비중이 감소하여 서남권이 큰 폭으로 1위

○ 종사자와 사업체 모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

- 종사자수는 16만2천여명에서 16만5천여명으로 2.2% 증가하였으나 사업체수는 거의 무변화
- 연평균증가율은 종사자 0.5%였으나, 사업체는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큰 차이가 없어 증가율로는 0.0%을 기록

[그림 4] IT융합산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[표 4] IT융합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162,025	165,571	0.5
사업체	7,892	7,879	0.0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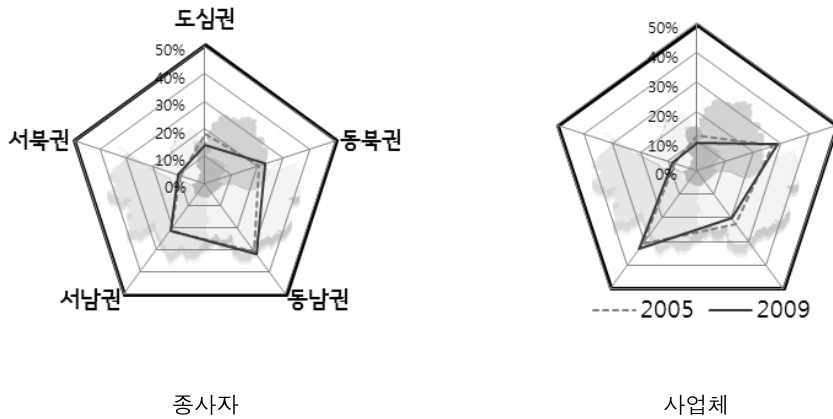
5) 바이오메디컬

○ 바이오메디컬산업은 종사자는 동남권에, 사업체는 서남권 및 동북권에 주로 분포

- 동남권에는 2009년 기준으로 종사자의 31.7%가 집중되어 있으며, 동북권(23.1%), 서남권(21.1%) 역시 비교적 많은 수가 밀집

- 반면 사업체는 서남권에 33.0%가, 동북권에 28.7%가 몰리고 동남권은 20.2%에 불과하는 등 대조
- 2005년과 비교하면 2009년 종사자 비중은 동남권이 0.9%, 동북권이 2.5% 증가한 반면, 서남권은 0.3%, 도심권은 3.9% 감소
- 사업체는 동일 기간동안 서남권과 동북권 비중은 각각 2.1%, 1.9% 증가한 반면 동남권, 도심권은 각각 2.3%, 2.7% 감소

[그림 5] 바이오메디컬산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○ 사업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종사자수 증가

- 사업체수는 1,116개에서 1,129개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종사자수는 8만6천여 명에서 9만3천여 명으로 8.4% 증가
- 연평균증감율은 종사자 2.0%, 사업체 0.3%를 기록

[표 5] 바이오메디컬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86,008	93,253	2.0
사업체	1,116	1,129	0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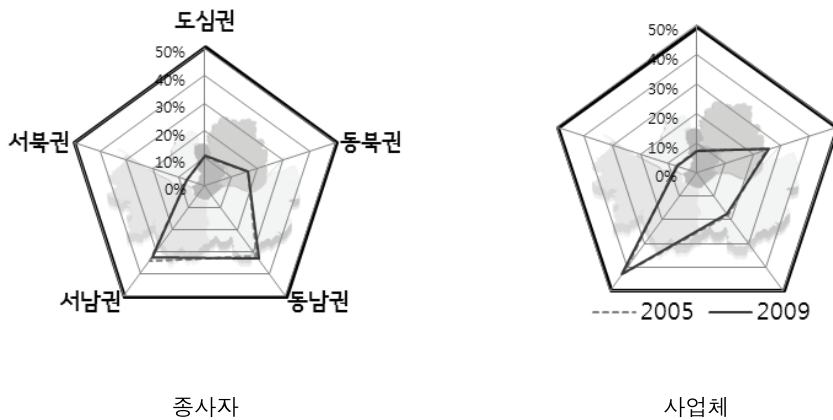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

## 6) 녹색산업

- 녹색산업은 종사자는 동남권과 서남권, 사업체는 서남권과 동북권 중심으로 집적
  - 2009년 기준으로 종사자는 동남권(33.2%)과 서남권(32.5%)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사업체는 서남권(43.0%)과 동북권(25.7%)에 집중
  - 서북권과 도심권의 종사자 비중은 각각 6.8%, 10.9%, 사업체 비중은 6.9%, 7.2%에 불과
  - 2005년 종사자에 비해 동남권은 1.1% 증가, 서남권은 1.3%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 권역에서 큰 변화는 없음
  - 사업체 또한 2005년에 비하면 서남권은 1.0%, 동북권은 1.0% 증가하였으나 역시 큰 차이 없음

[그림 6] 녹색산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### ○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감소

- 종사자수는 3만4천여 명에서 3만1천여 명으로 9.5% 감소하였으며, 사업체수도 12.4% 감소
- 종사자 연평균증감률은 -2.5%였으며, 사업체는 -3.3% 기록

[표 6] 녹색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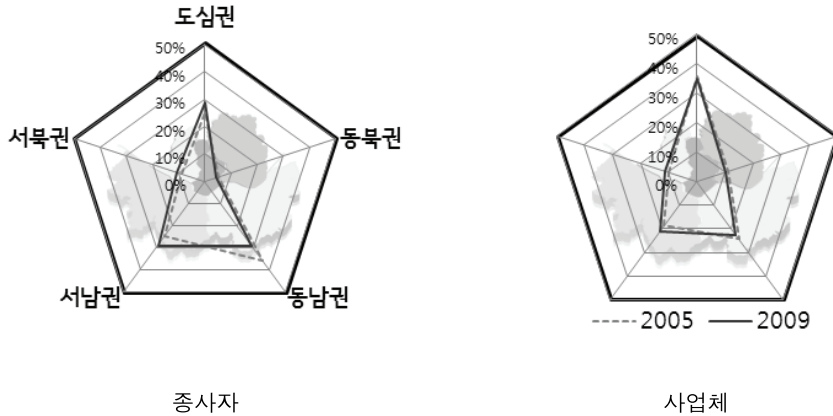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34,013	30,781	-2.5
사업체	3,761	3,295	-3.3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## 7) 콘텐츠

- 콘텐츠산업은 서남권, 동남권, 도심권의 종사자 비중이 비슷하나, 사업체는 도심권 집중이 뚜렷
  - 2009년의 서남권 종사자 비중은 29.0%로 동남권 28.9%, 도심권 26.8%와 큰 차이가 없음
  - 그러나 2005년은 동남권이 35.9%로 도심권 25.3%, 서남권 24.7%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, 상대적으로 동남권의 하락세가 부각
  - 사업체는 도심권이 34.7%로 가장 높은 가운데, 동남권이 22.4%, 서남권이 21.3%로 2 위권을 형성
  - 동북권은 사업체 비중은 10.4%이나 종사자 비중은 4.3%로 절반 이하
  - 2005년에는 도심권 비중이 35.8%, 동남권 24.4%, 서남권 18.7%였던 것으로 나타나, 서남권이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모두에서 성장세
  - 서북권은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모두에서 10%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,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각각 1.9%, 1.3%의 성장 견인
-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모두 소폭 감소
  - 종사자수는 2005년 12만9천여 명에서 2009년 11만9천여 명으로 8.1% 감소하였으며, 사업체수도 1만3천여 개에서 1만1천여개로 13.9% 감소
  - 종사자는 연평균 -2.1% 감소하였으며, 사업체는 연평균 3.7% 감소하여, 사업체 감소율이 더욱 큼

[그림 7]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[표 7] 콘텐츠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128,940	118,563	-2.1
사업체	12,470	10,734	-3.7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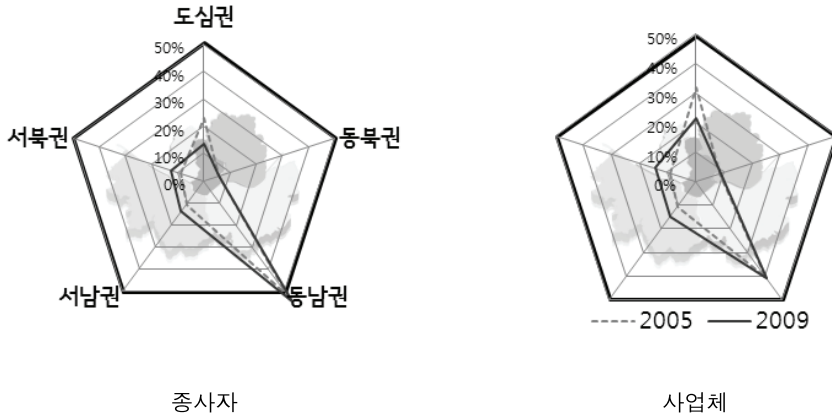
## 8) 디자인·패션

○ 디자인·패션산업은 동남권에 극도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며, 최근 서북권, 서남권의 비중이 상승 추세

- 종사자는 동남권(54.5%)이 압도적인 가운데 동북권(5.7%)을 제외한 서남권(13.9%), 도심권(13.4%), 서북권(12.4%)의 세 권역은 비중 유사
- 2005년 51.6%였던 동남권 종사자는 2009년 2.9% 증가하여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였으며, 도심권은 22.9%에서 13.4%로 4년간 9.5% 하락
- 사업체는 종사자보다는 동남권 편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, 여전히 40.6%로 높았으며, 도심권도 21.3%로 높은 편

- 서남권과 서북권은 사업체 비중에서도 각각 4.2%, 5.7% 성장하여 종사자 비중에서의 성장 폭보다 더 큰 성장세 기록

[그림 8] 디자인·패션산업의 권역별 비중 변화 (2005, 2009)

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○ 종사자와 사업체 모두 큰 폭으로 상승

- 종사자는 7천여 명에서 1만2천여 명으로 67.1% 증가하며 연평균증가율 13.7%
- 사업체는 종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34.1% 증가하였으며, 연평균증가율은 7.4%

[표 8] 디자인·패션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 (2005, 2009)

구분	2005	2009	연평균증감율
종사자	7,445	12,441	13.7
사업체	1,499	1,993	7.4

자료: 통계청, 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각년도

**참고문헌**

- 서울경제비전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(2011), 서울특별시
- 서울산업 발전방안연구(2010), 서울시정개발연구원
- 국가통계포털 <http://kosis.kr/>